

‘물놀이장·황톳길·극장’... 함평으로 피서 떠나볼까

물놀이장 19일부터 운영 100% 수돗물 깨끗한 수질 정평 주말 공휴일 DJ 버블파티 자동차극장 신작 영화 개봉

함평군이 지역민 인기 명소인 물놀이장을 오는 19일부터 8월18일까지 운영하며 DJ버블파티를 선보인다. 함평만의 천연 생태습지를 둘러볼 수 있는 함평천지길운영과 자동차극장에서 신작 영화들이 상영된다.

한 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함평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올 여름 시원하고 알찬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함평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 엑스포공원 일대에는 피서객을 맞이할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다.

먼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을 추천한다.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최되는 엑스포공원은 여름이면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2400㎡ 부지에 파도풀, 어린이풀, 유아풀, 슬라이드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년 함평의 여름 명소 중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물놀이장은 군민뿐 아니라 인근지역 거주민들에게도 입소문이 자자해, 입장객 대기 줄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다.

1일 최대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00% 수돗물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료 그늘막, 쉼터, 피크닉 테이블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용객 편의를 더해줄 배달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물놀이장 특별 이벤트로 ‘DJ 버블파티’가 열린다. 버블파티 시간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후 5시 진행되며 물놀이장 개장 이달 20일에는 오후 2시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4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함평엑스

포공원 물놀이장 입장권은 다음달 18일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를 할 수 있으며 개장일인 19일부터는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을 걸으며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평천지길’도 추천한다.

함평천지길은 수산봉 둘레길, 함평천 생태습지, 도시공원길(화양근린공원)로 구성된 총 6km의 도보길이다.

최근에는 작은 수산봉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 ‘맨발로(路)’ 0.6km를 조성해 면역력 증진과 혈액순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맨발걷기 구간을 마련, 관광객들에게 각광 받고 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 엑스포공원 일원에는 알록달록한 야간경관 조명이 켜져 늦은 시간에도 함평천지길을 걸을 수 있다.

화려한 불거리를 제공하는 엑스포공원 경관조명은 총 12종 4424점이 밝게 빛을 내고 있으며 야간경관 조형물 31종이 함께 어우러져 색색의 빛나는 조명을 통해

낮과는 또 다른 불거리를 제공한다. 야간 경관 조명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더운 밤에는 ‘함평자동차극장’에 와서 신작 영화 한 편을 감상하길 추천한다.

함평자동차극장은 2개 관(나비관·황금박쥐관)을 운영 중이며 매주 신작 영화를 개봉 및 상영하여 가족·친구·연인들에게 색다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함평자동차극장 공식 홈페이지(hpcc.moonhwain.net:451/)를 통해 사전 온라인 예매 및 현장 예매가 가능하며 상영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수질은 깨끗하게 안전은 철저히 관리해 관광객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물놀이를 하며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물놀이장 이외에도 함평천지길, 자동차극장 등을 방문하셔서 올여름 우리 함평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고품질 복숭아 홍콩 첫 수출길 영광군, 시설재배로 상품성 증대

영광군(김정섭 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은 지난달 27일 황도(조단장) 복숭아를 공동 선별하여 홍콩으로 수출하는 상차식을 영산면사무소 광장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광군에서 육성중인 기후변화대응 과수 시설재배 복숭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자리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영광군 관계자, 신성과수영농조합법인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의 고품질 복숭아 생산은 차별화된 기술지도와 해외 수출을 위한 많은 관계자 및 생산자의 노력이 결합하면서 빛을 받고 있다”며 “영광군 복숭아 시설재배는 천연 갯벌과 천일염 생산 지역으로 미네랄 함량이 높고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해풍복숭아의 수출물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출로 영광군의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광군 복숭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농업발전과 함께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홍역 항체 접종 무료 지원 화순군, 결혼이주여성 대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홍역 항체 검사 및 MMR(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4주 동안 백일해 발생이 코로나 19 이전 유행 시기의 2.5배 이상 증가했고 국내·외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기초 예방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해외 유입 홍역 및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문화가정 비율이 전국 3번째로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 대상지로는 화순군과 장흥군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350여 명의 혈액을 채취해 홍역 항체 여부를 확인하고 면역력이 없는 여성에게 MMR 백신을 한 달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추진함과 아울러 대상자 전원에게 Tdap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가정활력과 다문화팀과 연계하여 사업 홍보 및 통역 지원 등을 협조받고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화순=김선종 기자

수돗물 노후관망 정비 장성군, 9월까지 급수 구역 블록화

장성군이 지방 상수도 블록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 구역을 블록으로 나눠 시스템화하면 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수량 배분계획 수립과 탄력적인 물 공급 관리 등이 한결 용이해진다.

지난 4월25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장성군은 9월까지 블록 구축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93% 완료율을 보여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는 급·배수관 세척과 수질·수압 확인 등을 위해 부득이 장성을 일부 지역 밤 시간 수돗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 2867세대에 이어 11일 장안리·안평리·구산동·월산동·성산리·유당리·수산리 1727세대에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물 공급이 중단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수도 블록화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행남효행상 수상후보자 접수 영광군, 19일까지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오는 제48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를 맞아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공로자와 효행으로 사회 모범이 된 군민에게 수여할 ‘군민의상’과 ‘행남효행상’ 후보자를 찾는다.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9월5일에 개최되는 ‘제48회 영광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또는 군청 총무과(061-350-585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관계자가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올해 꽃게 포획금지 기간은 8월20일까지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꽃게 자원 보호 금지체장 측정자 배포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꽃게 포획 금지기간(6월21일~8월2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국립수산물관리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수협 및 어업인, 수산물판매소에 제작·배포했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숙련된 어업인과 수산관계자라 하더라도 포획 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배포하는 측정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는 △어린 꽃게의 등딱지 세로 길이(두홍갑장) 최소크기 6.4cm에 맞추고 △외포란 꽃게(복부 외부에 알이 부착된 암컷)를 보호하기 위한 포획금지 문구와 △외포란 관련 수산관계법령의 세부사항을 인쇄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형태로 했다.

영광군의 대표 어종 중의 하나인 꽃게는 자원회복 대상으로 포획 금지기간을 두고 관리되고 있으며 연도에 따라 어

획량 변동이 심해 남획될 경우 개체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꽃게와 외포란 꽃게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금지체장 측정자는 꽃게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면서도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됐다”며 “꽃게를 포함한 어린 개체와 산란기에 이른 개체는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어업인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부터 무더위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세균 증식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설사, 구토,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기승을 부

려 집단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와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과 접촉 시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자에게 치사율이 높

아 예방이 중요하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위험이 커졌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한 음식과 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